‘한방’ 벼르는 민주당

내주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장병완 의원 등 정책전문가 선봉대 투입

특혜의혹·부동산 투기 등 혹독한 검증

새로운 원내지도부 진용을 갖춘 민주당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의 데뷔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낙마 사례를 재현시켜 기선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원내부대표단과 원내대변인 등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를 받쳐줄 지도부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에 나설 공격진도 새로 짰다.

해외 출장 중인 기재위 소속 의원들 대신 전병헌, 우제창, 장병완 의원 등 정책 전문성이 뛰어난 3인을 투입해 선봉을 맏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부의 정책 실패와 5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에 검증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의혹들을 터뜨렸다.

홍영표 의원은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 부부가 낸 기부금 1억9700만원이 소망교회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 제기를 통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편중) 인맥’ 논란을 일으켰다.

홍 의원은 “청와대는 일 중심의 실무형 내각이라고 했지만 포장을 더 잘 한 기부금이 검증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유 내정자의 배우자가 2009년 대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해외 사업의 자문업무를 자신이 주요 주주인 투자자문사에 맡겼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권 내정자가 1987년 서초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1996년 팔면서 매입가의 3~5배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아들 명의의 청주 과수원과 논을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을 놓고 허위 등재 의혹이 일고 있다.

송훈석 의원은 또한 서 내정자의 배우자가 2007년 11월~2009년 6월 사료첨가제 사업을 하며 서 내정자와 건강보험 분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대해서는 비상장사 주식을 되팔아 큰 수익을 올린 뒤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인사청탁성 금품수수 의혹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한 인사들을 걸러낼 방침”이라며 “벌써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의 맹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과학벨트 진상조사 나설까

오늘 최고위원회의서 위원회 구성 강력 촉구

20일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 것인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김재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절차와 공정성의 문제점 등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당에 ‘과학벨트 입지 선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도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주선 최고위원은 광주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20일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 진상조성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도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이온가속기 설계 표절 의혹과 과학벨트 졸속 심사에 이은 졸속 추진까지 5조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불공정한 세부평가지표 항목과 비합리적인 가중치 선정 등을 통해 광주를 대구에 0.41점 뒤진 3위로 만들어 과학벨트 예산 증액분 1조6000여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을 대구, 울산, 포항 등 ‘형님 지역’에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날 최고위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 등 각종 변수가 있어 예상외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운천 사과 이벤트

“LH유치 실패 석고대죄”

작년 6·2지방선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 일괄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한나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정운천 전 최고위원(호남발전 특별위원장)이 19일 정부의 LH 경남 진주 이전 결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죄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전북도민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하얀색 한복을 입고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 앞에 마련된 함거(죄수를 이송하기 위해 수레 위에 만든 감옥)에 들어가 도민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함거에 들어가기 전에 배포한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망국적인 지역장벽 극복을 위해 LH 전북 유치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공약을 지키지 못한 잘못과 지역장벽을 더 심화시킨 결과에 대해 도민들께 석고대죄를 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이 용서해줄 때까지 전북대학교 앞과 객사,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북도청 앞 등 전주시내 주요 지역에서 석고대죄를 계속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당 정운천 전 최고위원이 19일 정부의 LH 경남 진주 이전 결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하얀색 한복을 입고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 앞에 마련된 함거에 들어가 석고대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은 학살자” “미친×”

한나라 자문위원, 트위터 올린 여배우에 막말 파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용모씨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트위터로 “학살자”라고 비판한 배우 김여진씨에게 “미친×”등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김여진씨에게 “미친×”이라는 글을 보냈다. 그는 또 “김여진! 경제학살자 김 아무개 전 대통령 두 사람(김영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칭한 듯)에게는 무어라 말할래? 못생겼으면, 함부로 씨부렁 거리(지)마라? 나라 경제를 죽이는 자는 나라 전체를 죽이는 학살자가 아니겠니? ××× 닥쳐라 ×××야”라는 험담을 퍼부었다.

박씨는 트위터 자기소개란에 “40대말 아저씨/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민주평통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파문이 확산하자 4시간쯤 뒤에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막말 좀 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사과하고 김씨 앞으로 보낸 트위터 내용 2건도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박씨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학살자라는 말에 아직도 별로 안 좋습니다.

김여진 이외의 분들에 대하여는 사과드립니다”라며 김여진씨에게는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씨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트위터에 “당신은, 일천 구백 팔십년, 오월 십팔일 그날로부터,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당신은 학살자입니다. 전두환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저희당에서는 박용모씨를 잘 모르지만 어찌 됐든 저희 당원 중의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데 대해 저희당 입장에서는 유감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비대위장

“檢 저축은행 수사 미흡땐 국정조사”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우리 사회의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민초들을 등쳐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총동원,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 저축은행의 악질적인 행위를 단절하고 먹이사슬 같은 비리행위를 척결하지 못하면 공정사회도 없다”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금융인의 도덕 재무장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가진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청와대는 이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全大 선거인단 20만명으로

한나라 비대위 “25일 의총서 전대룰 논의”

한나라당이 ‘7·4 전당대회’의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위원장 정의화 의원)가 19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비공개회의 결과, 국민과 당원의 뜻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날 당 사무처는 선거인단 확대와 관련해 전체 유권자의 0.52%인 20만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3년 최병렬 전 당대표를 선출한 전대에서 전 당원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전체 유권자의 0.6% 규모인 23만명으로 선거를 치렀다. 다만, 선거인단 수 확대 문제는 ‘대권-당권 분리’ 수정 문제와 비용 대비 효율성, 투표 참여율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안 대변인은 “오는 30일까지 전대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라며 “비대위는 오는 26일, 늦어도 27일까지는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 룰을 논의하는 의총을 열기로 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25일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의총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5일 오전에는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후에는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합동 연찬회 형식으로 의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30일에는 감세 철회 여부를 다룰 의총을 개최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앵남리
급 여 면접 후 결정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연 락 처 062)651-8871
010-3763-7335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www.ah-english.com
원어민영어회화
압구정영어가 한다!
년수입 10만달러 이상인 가정이거나
자녀가 10만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회화 에 투자 해야합니다.
왜? 압구정인들(고소득자)은그렇게 하고있다!!
수강료는 뤼즈너블 합니다
(월10만원/매20분수업)
★호주 어학연수 · 취업 상담★
압구정 원어민전용
전화영어·화상영어
070-7433-0594

전통 침·뜸 무료공개강좌
* 중국 중의대학과 학술교류로 중국자격증 취득가능
* 의료개방 대비, 통합의학에 필요한 인재양성
* 해외 침구사 양성 및 한방병원 설립, 취업지원
* 가정생활상식, 자가진단을 위한 세미나
* 27년간 침구학을 전문으로 강의한 교육기관
무료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3기) 5월 20일(금) 14:00-17:00
위치 : 쌍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직진 3층
교육과정 안내
·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기간 :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이침, 부항, 중국수침, 한방기초 등
· 전문과정
- 자격 : 기본과정 수료자 이상 - 기간 : 매주1회 1년과정
-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½정을 3~7일 정도를 연속 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